

<성과보고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도시 협력

- 도시 간 협력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제 세미나-

DAY 1 : 8 월 31 일 목요일

1. 개회사

이종인 여시재 부원장의 개회사로 국제 세미나 포럼의 막이 열렸다. 이종인 부원장은 먼저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본 세미나가 다양한 주제, 도시, 금융, 에너지 등을 다루고 있으며, 3 일 동안의 대장정인 만큼 연구자들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더불어 본 세미나가 동북아 협력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 세션 1 :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도시

1) 발표 1 :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첫번째 발표자인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도시 협력의 중요성, 필요성 및 적실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세대학교 EU 센터장이기도 한 이연호 교수는 먼저 도시간 협력의 적실성을 논의하며 동시에 국가간 협력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주권 국가는 역사적, 영토적 분쟁 뿐 아니라 국가별 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이민 IT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국가는 더 이상 협력 단위로서 유용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연호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력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협력 단위로서 도시를 제시했다.

도시간 협력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연호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상업적, 정치적 협력을 통해 발전했음을 소개하고 이어 중세시대 한자 동맹을 예로 들며 도시간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그리고 이러한 도시간 협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연호 교수가 제시하는 도시간 협력은 규제 완화, 분권화 및 시민의 참여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발전 속도와 통합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어냄으로써 최근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성장을 다시금 견인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이를 국가간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연호 교수는 특히 항구 도시의 협력이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강조하며 항구 도시 협력을 위한 인덱스 구축 등에 대해 본 포럼 세션 6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 밝혔다.

2) 발표 2 :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본부장

[북극항로 개방과 도시 협력: 강원도와 동북아 도시 성장의 가능성]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 물류 연구본부장은 북극항로 관련 연구의 전문가이자 실무자로서 북극항로의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북극항로-강원도의 연결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성우 본부장은 먼저 현재 북동항로(NSR)의 문제점으로 첫째, 서구의 러시아 제재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며 둘째, 현재 에너지 가격 감소로 북극항로의 수익성이 줄어들었으며 셋째, 팩트 아이스(packed ice)로 인한 위험문제를 들었다.

수익성 문제는 특히 북극항로 개발 자체와 상관이 있다. 선사 입장에서 북극항로는 절대 수익성 높은 항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방항로(27~28 일)가 아닌 북극항로(18 일) 이용시 선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따라서 북극항로가 현재 쟁점이 되는 원인은 수익성 보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의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북극항로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성우 본부장은 정기선인 컨테이너 화물선이 아닌 비정기선인 벌크 화물선(자원수송 화물선)을 운용하는 것을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극에서 자원을 한국으로 곧바로 들여오기보다는 시베리아의 여러 항구를 계속 들리면서 자원을 수송하는 비정기선이 시장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때 비정기적 벌크화물선으로 운송할 만한 시장성 있는 자원으로는 우드팔렛을 언급하였다. 현재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러시아 우드팔렛이 90 퍼센트 이상 저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성우 본부장은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과 북극항로개발을 연결하였다.

항공 드론, 무인 트럭, (팩트아이스 감지용) 수중 드론, 무인 선박, 즉시부두시설(Prompt Port Facility; PPF), 사람 없이 운용되는 항만 도시 등이 그 사례이다. 이 중 기존 유희선박을 개조해 항만 관련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PPF 는 열악한 지역에 적합한 설비이다. PPF 설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PPF 설비 자체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PPF 는 북극항로 개발의 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성우 본부장은 세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강원도가 북극항로의 종착지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강원도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물류네트워크가 갖춰져야 한다. 둘째, 북극항로를 한 번에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극동러시아 지역까지 연결되는 물류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물동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화물을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류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는 곧 도시간 교류 증진을 의미한다.

3) 세션 1 토론:

토론자 : 유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지원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주무관,
비아체슬라프 가브릴로프 극동연방대 교수

바체슬라프 가브릴로프 극동연방대 교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극항로에 대해 발언하였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내항로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북극항로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와 시설이 부족하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부재하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꾸준히 나서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북극항로의 물동량은 연간 2,000 만톤을 기록한다. 러시아는 북극항로에 놓인 주요 항만은 건설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철도도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브릴로프 교수에 따르면 시베리아를 통한 물류 운송은 별로 낙관적이지 않다. 북극항로와 비교할 때 시베리아 내륙은 인프라나 여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강을 이용하며 운송이 가능하지만, 강을 통해서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종류와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미 러시아 지방정부가 강을 통한 운송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그다지 현실성이 없었다. 외국 입장에서 굳이 러시아의 하천으로 물류를 운송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가브릴로프 교수는 마지막으로, 4 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성에 관해서는 법적 보장이 필요하며 투자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성우 본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4 차 산업혁명의 기술 부분을 접목한 이유는 경제성에 있다. 러시아에서 가져올 만한 물품이

많지 않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해 보았고, 그 결과 우드팔렛을 언급한 것이었다. 야말반도나 다른 지역에서 개발하는 LNG, 석유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항로 자체가 건강해지려면 동서남북물류가 가능해야 하고 시베리아 안에서 무언가가 나와야 한다. 그것들은 러시아-한국 더 나아가 한중일러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법적인 부분의 경우, 그는 러시아와 협력 두 차례 진행하였으나 둘 다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이성우 본부장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때, 러시아 철도공사와 비용부분으로 논쟁을 하다가 들은 말이 있다. “10cm 의 자로 1km 를 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시사하는대로, 러시아 물류는 10 일이 걸리지만, 한국은 4 시간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 못한 채 비즈니스를 진행하다보니 충돌하였고, 이것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예컨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이야기 하면 러시아인들은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특구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의 이해도가 먼저 높아져야 하며,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는 쉽게 해결 될 수 있다. 다행히 양국간 이해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만찬

참석자들은 만찬에 참석하여 세션 1 에서 다루었던 도시 협력의 중요함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논하였고 3 일동안의 포럼에서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기로 다짐하며 첫날의 세션을 마무리지었다.

DAY 2 : 9 월 1 일 금요일

1. 세션 2 : 지역 개발을 위한 금융 협력

- 1) 발표 1 : 이용욱 고려대학교 교수

[지역 금융협력의 담론 제시]

이용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제정치경제를 아울러 지역 금융협력의 필요성 및 효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동북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동북아 금융 협력은 한중일 삼국 및 아세안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초석이며, 재정 안전성 및 경제 성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다양한 협력 방안 중 이해관계를 가장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역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CMIM 과 AMRO, 지역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ABMI, 지역 개발 금융을 위한 ADB 와 AIIB 등 동아시아는 다양한 금융 협력을 모색하며 협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동아시아의 금융 협력은 역사 이슈, 경제 성장 속도의 차이 및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협력 촉진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용욱 교수는 이를 위해 세 가지의 솔루션을 제안한다. 먼저 “We - ownership”이다. 각국, 특히 한중일 삼국이 이러한 금융 협력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 금융 협력의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일본의 주도 하에서 형성되는 금융 협력 지도에 대한 반감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리더십 공유, 아세안의 도덕적 해이 극복 등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동아시아 협력체의 일원으로서 양국과 리더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솔루션은 도덕적 위기 극복 및 신뢰 회복이다. 각국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신뢰 회복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갈등 극복의 플랫폼으로써 이용욱 교수는 세번째 솔루션, “금융 민주화”를 제시한다. 금융 민주화는 금융 위험 관리를 통한 금융 지역 안전망 강화, 금융 접근성 증대 등을 통해 실물 경제 및 금융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모델이다. 이를 위해 앞서 동아시아 경제 협력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가지 솔루션을 통해 이용욱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금융 협력 기관들을 활발히 이용하고, 한중일 정상 회담 개최 등,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금융 민주화” 실현, 공공민간 분야에서의 금융 협력 촉진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각국의 이익 실현에 기여할 것을 예측한다.

2) 발표 2: 카와이 마사히로, 도쿄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환동해 경제연구소(ERINA) 대표이사

[동북아 개발협력과 지역금융]

카와이 마사히로 교수는 동아시아에서도 한중일 3 국의 금융 협력 가능성 및 이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앞서 이용욱 교수가 언급했듯 한중일 금융 협력은 기타 부문에 비해 협력이 용이한 분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드, 영토 분쟁 및 역사 이슈 등 다양한 정치적 분쟁으로 인해 삼국의 경제 협력 상황은 여타 대륙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카와이 교수는 그동안의 삼국 금융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한-일간 금융 대화, 한-중 금융 대화 및 아세안 +3 의 중앙은행 모임 등 동아시아 내 금융 협력의 중요성은

많은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시키려는 노력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중일의 금융 시장 발전 단계는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경우 저수익성 및 상당한 금융시장 개방도로 특징지어지며, 중국의 금융 시장은 성장 저해, 기업의 높은 레버리지 등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및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삼국에게는 핀테크 및 장기 대출 문제 등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카와이 교수는 삼국 공통의 금융 허브 구축, 동북아 공동 통화 사용 등을 통해 삼국간 협력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고, 특히 공동 통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 통화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는 차후 동북아시아가 금융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이 금융위기가 작다면 현재 CMIM 나 AMRO 의 존재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기의 규모가 큰 경우, IMF 의 개입이 없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동북아간 협력 속에서도 IMF 와의 연계 역시 필요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3) 세션 2 토론

토론자 : 인나 나우모바 극동연방대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 협력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보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현재의 지역적 금융 협력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각국의 경제적 발전 단계도 다른 만큼 다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러므로 이러한 금융 협력이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이유가 다양한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을 포함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먼저 두 국가간의 협력을 진행 및 발전시킨 후 이를 다국가적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녀는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차후 금융 협력시에는 AIIB 및 ABMI 등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헛징하고 위험 감소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측 및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위안화의 공동 통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인나 나우모바 극동 연방대 교수는 먼저 현재 세션의 논의가 한중일 3 국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동아시아 금융 협력의 중심에는 한중일 삼국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 특히 러시아 역시 동북아와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행위자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나우모바 교수는 이용욱 교수의 금융 민주화 중 특히 실물 분야와 금융 분야의 연계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교수에 따르면 물론 금융 분야에의 투자 역시 매우 효과적일 것이며 중요하다. 그러나 실물 분야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20 세기 실물 분야에의 직접 투자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실물 경제의 발전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카와이 교수는 안유화 교수가 제안한 의견 덕분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향후 이를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AIB의 대부분의 활동이 달러를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설정하는 일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용욱 교수의 발표에 대해 그는 “금융 민주화”의 개념이 아직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으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2. 세션 3 : 금융 협력 방안의 구체화

1) 발표자 :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

[동북아 지역금융협력의 구체화]

박선영 카이스트 교수는 발표에서 정치적 갈등, 달러 중심의 경제, 경제 성장률의 저하, 국가간 차이 증대 등 다양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북아 금융 협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적 협력 허브 구축을 통해 무역, 투자 및 금융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발표 서두에서 그녀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색, 공공민간 참여를 통한 협력 등을 동북아시아 금융 협력의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그녀는 동북아시아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정치적 상황 및 FTA 체결 현황 등을 분석하며 실물 경제와 비교하였을 때 금융 협력을 통해 보다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및 정치적 상황에서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와 같은 외부 행위자의 영향을 크게 받고, 내셔널리즘과 영토 분쟁과 같은 정치적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향후 동북 아시아의 가능성은 밝다. 2020년 경 40%의 세계 자산이 동북아에

집중될 것으로 매킨지 그룹이 예측한 바 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 상당 부분이 유럽 및 북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물론 동북아는 달러 의존도가 크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다는 사실을 박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그녀는 동북아의 협력체제로부터 북한이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각국이 공통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금융 협력체제를 통해 금융 뿐 아니라 무역 등의 실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지었다.

2) 세션 3 토론

토론자 : 카와이 마사히로 도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키쿠치 요나 일본국제포럼 부의장

카와이 마사히로 교수는 먼저 박선영 교수의 발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금융 협력안의 부재가 아쉽다는 평을 남겼다. 그는 박선영 교수의 금융 협력안의 방향과 세션 2 에서 스스로의 금융 협력안이 매우 비슷한 방향이라는 측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였다. 또한 발표에 대해 매우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 질문을 던졌다. 먼저 발표에서 제시한 금융 협력을 위한 한중일 정책 담화에 다른 국가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또한 금융 협력을 위해 어떠한 종류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지 기반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화폐의 국제화와 관련, 현재 달러 중심의 시스템에 대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는 질문도 덧붙였다.

키쿠치 요나 부의장은 역내 협력과 관련하여, 무역, 금융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해 누구보다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IMF 위기,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동아시아 정상 회담 및 CMIM 등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체를 구체화하기 위해 RCEP 과 동아시아 통화 기금 등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동아시아 협력체와 관련된 역내 협력 체제 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현재 동아시아 협력 체제는 다양한 방안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의 중첩적인 시행을 일원화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투트랙 방식 협력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선영 교수는 카와이 교수의 질문에 답변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달러 의존적 경제를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본인의 생각을 제시했다. 더불어 박교수는 한국의 경우 국가 규모가 작아 해결책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한중일 협력을 통해 해결책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한일 외환 스왑을 이러한 협력의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공통의 한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협력이 용이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CMIM의 활동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이의 역량을 확대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이고 지역 안전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의 외교적 수사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정책 담화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논의가 진행된다면 보다 동북아 금융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답변을 마무리 지었다.

이어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는 AMRO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와 비슷한 프레임을 지닌 금융 기관이 한중일 사이에서 구축된다면 보다 금융협력을 용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였으며 현재 실물 자산 및 사람의 움직임이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협력에 제한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현 협력 체제의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DAY 3 : 9 월 2 일 토요일

1. 세션 4 : 에너지 협력과 동북아 도시

발표자 :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소콜로프 러시아 가스포럼 부장

1) 발표 1 :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러시아 LNG 對 미국 LNG: 아시아 천연가스/LNG 시장에 주는 함의]

김연규 교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은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상황이 생겨난 배경과 러시아의 LNG의 중요도가 높아진 배경을 짚어볼 필요를 피력한 뒤, 러시아 LNG와 미국 LNG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고 이것이 아시아의 천연가스 및 LNG 시장 더 나아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논하였다.

미국은 2016년 2월부터 에너지를 수출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도 2017년 10월부터 북극에서 얻은 에너지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 두 나라의 에너지 수출 경쟁 판도와 한중일의

LNG 수급 상황을 살펴볼 때,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서 LNG 공급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은 질이 높고, 카타르 계약과 달리 유연성을 가지는 미국산 LNG 의 수입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자 러시아 LNG 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LNG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할 것인지’를 파악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발표 2 : 드미트리 소콜로프, 가스수출국포럼 에너지 경제 예측부 부장

[동북아시아에서의 에너지와 천연가스 전망]

가스수출국포럼(GECF) 에너지 경제 및 예측부 부장인 드미트리 소콜로프는 가스수출국포럼을 소개한 뒤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전망을 논하였다. 정기적으로 천연가스 시장을 전망하는 기구는 국제적으로 약 20 개가 존재하나 가스수출국포럼은 보다 정확한 전망을 위해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수소연료를 포함한 34 개의 여러 연료들과의 경쟁 정도를 분석하며, 한중일처럼 중요한 시장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 개발을 경제 개발과 엮어서 단순 계산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분석이 보다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각국 LNG 정책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스수출국포럼은 내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동북아시아 지역 에너지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비롯된다. 가스수출국포럼은 2040 년까지 중국의 LNG 수요가 6000 억 m³(600bcm)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가 올해 내놓은 전망치(620bcm)는 이와 유사하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LNG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리스크로 인해 파이프라인 혹은 트레이딩 허브 건설 이슈를 단기적으로 실행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고가의 상황에서의 안정적 공급에 최적화 되어있는 미국산 LNG 와 대조적으로 저가의 상황에서는 가스수출국포럼이 경쟁력 있는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에서는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중-러 사이의 강력한 협력이 예상된다.

3) 세션 4 토론

토론자 : 핫타 타츠오 아시아 성장연구소 소장, 권원순 한국외대 교수

헤타 타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 소장은 일본 전력조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두 발표에 대해 경제학자이자 일본인으로서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을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을 통과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에 의해 특정 발전소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지방정부에서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소송을 걸 경우 법원이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여러 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에너지 수요 전망이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노후 에너지 발전소를 대체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소는 가스 터빈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시아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LNG 와 관련된 여러 시장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천연가스 사용 장비를 대여(LNG 탱크 대여 등)해주는 시장이 필요하며, 현물시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는 현재 아시아에는 LNG 현물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은 현물시장을 형성하기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권원순 교수는 산업적 측면에서 LNG 전망 및 추세를 논의하였다. LNG 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 생산한 가스를 2)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3) 가스를 정제한 뒤 4) 액화하고 5) 로딩으로 배에 실어서 운반한 뒤 6) 탱커에 LNG 를 저장하고 7) 로컬 네트워크 망으로 수요처에 공급을 하는 생산유통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LNG 에 연관된 사업이 굉장히 많다. LNG 는 유연하면서도 장거리까지 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둘러싼 산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LNG 는 선박으로 수송하게 되어있는데 전세계 LNG 선박 81 척 중 37 척만이 독립체(즉, LNG 유통업체) 소유 선박이며, 나머지는 LNG 프로젝트에 연동되어 건조된 선박이다. LNG 수급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외에도 더 있다. 운송 루트상의 문제도 존재하는데, 미국산 LNG 의 경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파나마 운하의 관문은 폭이 49m 에 불과하다. 반면에 러시아 야말 LNG 를 수출하고자 발주한 LNG 선의 폭은 50m 이다. 즉 야말 LNG 운반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 참고로, 수에즈 운하는 수심이 깊고 폭이 100m 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LNG 제반 산업 발전을 도모할 때는 위와 같은 산업적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LNG 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LNG 시설이나 로컬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LNG 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은 단일한 로컬망을 구축한 상태이며 중국에는

단일한 로컬망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각 국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수요 전망, 산업과 연관된 효과들, 각 국의 산업적 지향점, 소비체 협력 구축의 가능성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토론자는 지적하였다.

2. 세션 5 : 에너지 협력 방안의 구체화

1) 발표 1 : 톨락 K. 도시, Muse, Stencil & Co., 아시아 담당 경영 자문

[싱가포르의 에너지 스팟 마켓 현황]

톨락 K. 도시 박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 천연가스 시장과 싱가포르 에너지 스팟 마켓의 현 상황에 대해 논하였다. 글로벌 가스 시장은 크게 세 지역으로 집단화되고 있으며, LNG 생산국 순위가 급격하게 변하는 중이다. 아시아 수요를 보자면, 일본과 한국은 성숙한 시장이기에 단기적으로 큰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며 중국과 인도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LNG 거래 자체가 유연성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장기계약만을 요구하는 카타르와 계속 거래하지 않고 러시아, 미국 등으로 거래처를 바꿀 것이다.

도시 박사에게 따르면, 싱가포르는 금융시장 허브와 석유 허브를 구비한 국가로서 LNG 트레이딩 허브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을 갖춘 상태이다. 각종 세제 혜택과 영어 사용국이라는 조건을 차치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법인 설립이 굉장히 용이하다. 혹은 싱가포르의 국토면적이 적다는 단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 내륙 지역에 LNG 탱커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미 부유식 액화 플랜트가 흔해지는 추세이다. 동남아에 PNG 시설이 부재하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국 트레이딩 마켓과 더 나아가 스팟 마켓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유동성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허브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갖추어 왔으며, 정부가 트레이딩을 중요산업으로 간주하기에 LNG 허브 및 시장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발표 2 : 안상욱, 부경대 교수

[한국 LNG 트레이딩 허브 계획의 좌절: 지역협력의 부재]

안상욱 부경대학교 교수는 한국에 LNG 트레이딩 허브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어떠한 좌절을 겪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 LNG 트레이딩 허브 구축에서의 문제와 해법을 짚어보았다. 2013년 IEA의 분석에 따르면, 아시아 내 트레이딩 허브 후보지로서 한국의 점수가 가장

났었다. 그 후 한국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에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욱 교수가 정리한 한국의 문제들로는 첫째, 코가스(KOGAS)의 수입, 저장, 송전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이다. 둘째, 효성(株)이 2014 년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가스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다. 2014 년 당시 한국 기업과 정부는 이웃국가(일본, 중국)의 전략을 고려하지 않았고 이것이 트레이딩 허브 계획의 좌절의 주요인으로 작동하였다.

한국이 아시아에 트레이딩 허브를 구축하려면 후보경쟁지인 일본과 중국을 경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소리이지만, 사실 트레이딩 허브는 주변국가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수입 비용이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비싼 현상을 일컫는 아시아 프리미엄은 여전히 골칫거리이다. PNG 인프라를 구축한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싸게 수입을 할 수 있으며, 가격협상여지(레버리지)가 많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가스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2012,13 년에 싱가포르에 대규모로 진출하고, 호주, 보르네오 등지에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더 나아가 FTA 를 체결하지 않고도 미국으로부터 LNG 를 수입한 최초의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은 천연가스 수급 및 시장을 둘러싼 매우 상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한중일 3 국의 상호신뢰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추세이기에 수급 및 트레이딩 허브에 대해 3 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이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안상욱 교수는 강조하였다.

3) 세션 5 토론

토론자 : 핫타 타츠오 아시아 성장 연구소 소장,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핫타 타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 소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천연가스 거래는 자주 장외시장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헷징 도구가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유가 연동제로 진행되어왔다. 유가 연동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가스 스팟 시장에서의 가격지수 신뢰성과 상관 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LNG 스팟 시장이 일본에 형성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는데, 만약 일본에서 가스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3 자가 협력하는 체제가 등장한다면 스팟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안상욱 교수는 일본에 국가 파이프 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이슈가 안보/군사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한중일 간에 에너지 협력 및 트레이딩허브 구축을 둘러싼 분쟁이 빚어지면서

이 쟁점이 동남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김연규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허브 위치로 적합할지라도 셰일가스 혁명 이후 미국산 LNG 수입 최적의 경로에 있는 한국이 허브로서 강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은 두 개의 허브, 즉 가상 허브(virtual hub)와 실물 허브(actual hub)를 모두 가지는 쪽으로 타협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가 동북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상황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점을 그는 피력하였다.

3. 세션 6 : 경제 자유화와 도시 협력

발표자 : 우병원 한국외대 교수, 홍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 박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

1) 발표 1 : 우병원 한국외대 교수

우병원 한국외대 교수는 도시간 협력의 의의와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며 도시 인덱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간 협력은 Battle of Sexes 또는 Prisoners' Dilemma 와 같은 제로섬 게임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bsolute gains 만을 고려할 경우 어떤 선택지를 고르든 이익이 발생하므로 협력이 발생하기 쉬우나, relative gains 를 고려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대방이 발생하므로 협력이 불가능하게 된다. 우병원 교수는 이를 도시에 적용하여 도시와 국가 간 이익전환 발생 국가는 상대이익을, 도시는 절대이익의 관점에서 협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국가 간보다 도시 간 관계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국제 협력 거버넌스의 유형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협력의 깊이와 범위에 따라 M1 - Real Politics of Cities(UN 안보리 모델), M2 - Decisions by Mayors and Citizens(EU Council 모델), M3 - Parliament of Mayors(UN 총회 모델), M4 - Club of Mayors(OECD 모델), M5 - Loose Network of Mayors(G20, C40 모델) 등이 존재하며 향후 2-30 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지향점은 M2, M3 정도의 협력이라 판단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 발표 2 : 박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

이어 박지영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 연구원은 항만도시 인덱스 개발과정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설명에 따르면 항만도시 인덱스는 개별 항만도시의 단순비교가 아닌 메트로폴리스들과 지자체 항구도시 간 동등비교를 위해 광역자제단체

단위로 데이터를 합산하여 활용하며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하고 상 그룹 도시들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지자체 간 결과를 하나의 지도로 표시하고 연말까지는 일본과의 비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차후 각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수의 유용성에 대해 확대 비교할 예정이다.

3) 발표 3 : 홍지영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

이어 홍지영 연구원은 도시간 협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는 특히 크루즈 산업의 가능성과 이를 통한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는 크루즈와 페리를 묶어 여객항만 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현재 항만도시 간 협력이 물류항만 간 협력에만 중점을 둔 반면, 차후 물적 교류 및 인적 교류의 차원에서 여객 및 크루즈 항만 간 협력에도 대등한 수준의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크루즈 협력을 위해 중국, 일본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하며, 세관, 출입국 관리 등의 연계가 기반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참여 유인의 설계가 중요함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크루즈 산업이 항구 도시간 협력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내륙지역과 연계하여 협력 체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 역시 덧붙였다.

4) 발표 4 : 다이 니호 아시아 성장연구소 연구 부장

[Trans Border Urban Cooperation in the Pan Yellow Sea Region]

이어 다이 니호 아시아 성장 연구소 부장은 황해 지역 도시들의 협력체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현재 일본 키타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OEAED 체제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를 제공하였다. 그는 먼저 키타큐슈, 시모노세키, 인천, 부산, 달리안, 칭타오 등 10 여개 도시를 아울러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는 OEAED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이 때 도시 선정 기준이 1) 전통적 관계, 2) 지리적 위치, 3) 각 국가의 위치 등임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OEAED는 광대한 규모의 도시간 경제 협력 및 기술, 자원의 교환 등을 실천한다. 그러나 OEAED의 활동은 중앙 정부의 지원 미비, 지방 정부의 역량 부족 등으로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이러한 OEAED의 활동으로부터 보다 강력한 도시간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1) 도시 정부간 책임감의 적절한 분배, 2) 지방 정부의 자율성 확보 3) 중앙 정부의 지원 등을 극복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이의 보완을 통해 차후 도시간 협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4. 세션 7 : 도시 협력 방안의 구체화(라운드 테이블)

세션 7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펼쳐졌다. 먼저 김영식 강릉 원주대 교수는 접경도시에 대한 협력, 크루즈 발전의 가능성, 북극항로의 장단점과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강원도- 도시 지역 간 협력을 언급하며 2012년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강릉과 동해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각 국가들이 경제특구로 개발하려는 지역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각 지역이 협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동성 표준화연구원의 황명호 박사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이나 학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적하며 도시간 자주권의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했다.

바딤 러시아 극동대학교 교수는 OEAD의 확장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도시간 모델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시간이나 경제적 측면의 제약에 참여자들의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헷타 타츠오 아시아 성장연구소 소장은 도시 협력에서 이론적인 부분만 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표시하며 실질적인 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예시로서 기타큐슈-부산간에 진행중인 더블넘버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OEAED가 도시 행정 차원에서도 민간 부분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도시 행정도 이를 이용해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루써 극동연방대학교 교수는 스스로의 연구분야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럼에서의 연구 주제를 연계하여 특히 항구도시의 생태와 경제가 상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덱스에 지속가능 원칙을 추가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항구는 그 자체가 허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중심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항구를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만을 거기에 맞추어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2) 종합토론

이연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가 대 국가의 협력은 중앙정부간의 협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스스로의 연구 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개방성 높고 교류가 많은 항만 도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 자매 도시간의 연계 등을 강조하며 차후 분석

범위를 타국 도시로까지 넓힐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에 인나 나우모바 극동대학교 교수, 아키야마 마사히로 아키야마 어소시에이츠 대표가 도시간 협력의 방향에 대해 차례로 질문을 던졌고 이에 이연호 교수는 지방 정부의 자율적인 참여와 중소기업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홍지영 연세대학교 연구원은 도시간 협력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동해시, 속초시의 지역들이 한 때 일본 항구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에 실패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크루즈 산업이라는 요소를 협력 체계에 끼워 넣고자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이용욱 고려대학교 교수는 도시간 협력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연호 교수는 이에 도시간 협력을 확대하여 국가간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황명호 산동성 표준화 연구원 연구원은 인천-웨하이 도시간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도시간 협력은 타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수립하여 중국의 일대일로와 함께 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또한 핫타 타츠오 아시아 소장 역시 홋카이도를 예시로 들며, 도시간 협력에 있어 자원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5. 폐회식

이광재 여시재 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3 일동안 열정적으로 세미나에 임한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독려했다. 또한 현재 여시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비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 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에 대한 희망을 제안했다.

6. 만찬

강원도 양양 낙산비치호텔 4 층 세미나룸에서 만찬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여정이 무사히 끝났음을 축하하며 이후 연구를 보다 발전시킨 모습으로 자리할 것을 다짐하였다.

7. 평가

참가자들은 이번 국제 세미나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북아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본 세미나에서는 각 부문의 연구가 차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참석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 발전시켜야 할 향후 과제들 및 보완해야 할 점들이 연구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들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협력이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시재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를 정리하며 11월 개최될 2017년 여시재 포럼(2017 Future Consensus Forum)에서 동북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